월간

PIGHEAD LAB 피그헤드랩

월간 피그헤드랩은 건강한 삶과 문화를 지향하기 위한 자유로운 이야기를 담은 잡지雜誌입니다.

44호
2026.8



ISSN 3059-0280

김희진_ 아름다워서 아름다웠으면 한다.
서른한번째 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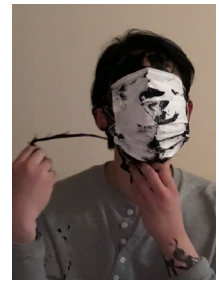
오종원_ 주식을 하는 자는 믿는 자이다
마흔번째 원고

조은영_ L♡보ME 칼럼 5.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게
다섯째 원고

이동민_ 왜 프랑스사인가?
첫번째 원고

X_ 그곳에 가고 싶다 : 유토피아(Youtopia)
열아홉번째 원고

아름다워서 아름다웠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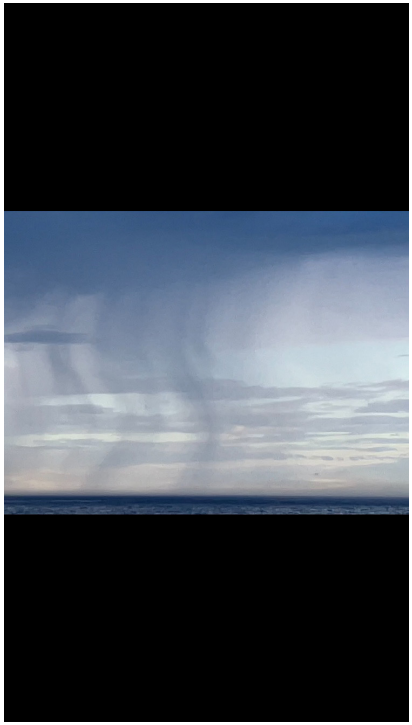
김 희 진
노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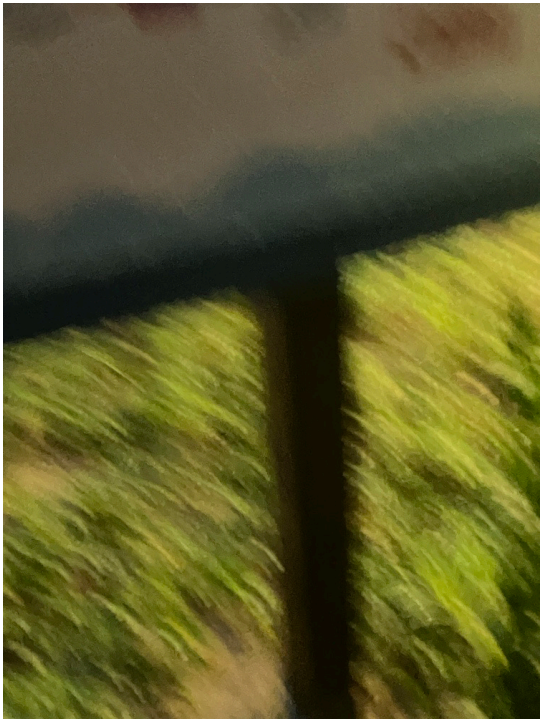
아름답다는 것은, 생각건대, 그것을 아름답다고 보는 자에게 무슨 빚 같은 것을 지우는 일인 듯하다. 보았으면 갚아야 한다. 어떻게든 값을 치르게 한다. 날 이루는 살갗을 떼어내는 것으로.
신체라는 것이 본디 얼마나 천박한 기관의 집합인가.

아, 그러니까, 나는 기껏 아름다운 것을 보았다 말하는 자가 되어서도 배가 고프고, 오줌이 마렵고, 돌아가는 막차를 계산하고, 그것을 보았던 내 얼굴이 또 얼마나 볼 만했는지를 은근히 궁금해하는 것이다. 이 알량한 살덩이는 밀려오는 감동에도 불구하고 자기 체온 하나를 지키겠다고 웅크리고, 눈깔은 아름다움을 담았다면서도 조금만 마르면 눈물을 짜내고, 위장은 저 혼자 꾸륵거리며 자기 존재를 항의한다. 그래놓고 나는 살갗을 떼어 갚겠다니.

누가 달라고 하느냐. 누가 네 살을 요구했느냐고, 이 말이다.
아름다움은 나를 본 적도 없는데 나는 혼자 채무자가 되는구나. 혼자 빚을 만들고, 이자도 붙이고, 탕진하고, 그러고는 제 빈 주머니를 뒤집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내가 이만큼이나 아름다움을 사랑했습니다, 하고 싶은 꼴이구나.

이 얼마나 볼품없는 야망인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고 느끼고 싶다. 말하자면 그뿐이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구제해서도 아니고, 어떤 기억을 불러와서도 아니고, 시대의 비참을 대변해서도 아니고, 내 작업에 쓸 만한 형상을 몇갖 제공해서도 아니다. 그런 쓸모라는 것이 달라붙는 순간 아름다움은 얼마나 빨리 초라해지는가.

근데 이 어리석은 자는 또 거기다가 의미를 붙인다.붙이고, 붙이고, 붙여서는, 마침내 그것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덕지덕지 처바른다.

아름다운 것을 보았는데 기어이 그것을 작품으로 만들어야 직성이 풀리고, 문장으로 옮겨야 하고, 왜 아름다웠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끝내는 그 아름다움을 발견한 놈이 나였다는 사실까지 은근슬쩍 끼워 넣는다.

아. 이 도둑놈 같은 눈깔. 보았으면 그냥 볼 것이지. 왜 가져가려 하는가. 왜 그것으로 네 것을 만들려 하는가.

그러고 보면 소유욕이라는 것이 반드시 손으로 움켜쥐는 일만은 아닌 모양이다. 이해하는 것도 소유이고, 기억하는 것도 소유이고, 말하는 것도 소유이며, 아마 아름답다고 선언하는 일마저도 그것을 제 입안으로 한 번 삼켜보겠다는 천박한 식욕인지 모른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아직도 모르겠다.

그것을 본 값으로 하루 하나를 버리고, 돈 몇 푼을 버리고, 온전치 않지맘 마음의 모서리도 하나쯤을 내어주고, 아무도 요구하지 않은 것을 공연히 갖다 바치고 돌아와서는, 아아 또 이 지랄을 하였구나, 하면서도 안심하는 것.

아, 역겹다. 그런데 그 역겨움까지 껴안지 않고서 내가 대체 무엇을 말할 수 있겠는가.

그래도, 결국, 아름다워서 아름다웠으면 한다. 그 이유를 캐묻는 동안 벌써 저물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회화는 더이상 벽에 걸리기를 거부하듯, 서로에게 기대어 걸쳐있고자 노력한다. 그림 뒤에는 또 다른 그림이 있고, 그 뒤에는 합판과 벽체가 있으며, 모든 표면이 또 다른 표면에 반쯤 가려져 남는다. 어딘가 더 적당한 전시장이라면 정면을 향했을 회화는 여기라서 기울어지고, 겹쳐지고, 잘릴 수 있다. 하나가 그것의 온전한 윤곽을 확보할 수 없다. 보이기 위한 적절한 거리를 얻지 못한 채, 다른 이미지들의 몸에 붙어 가까스로 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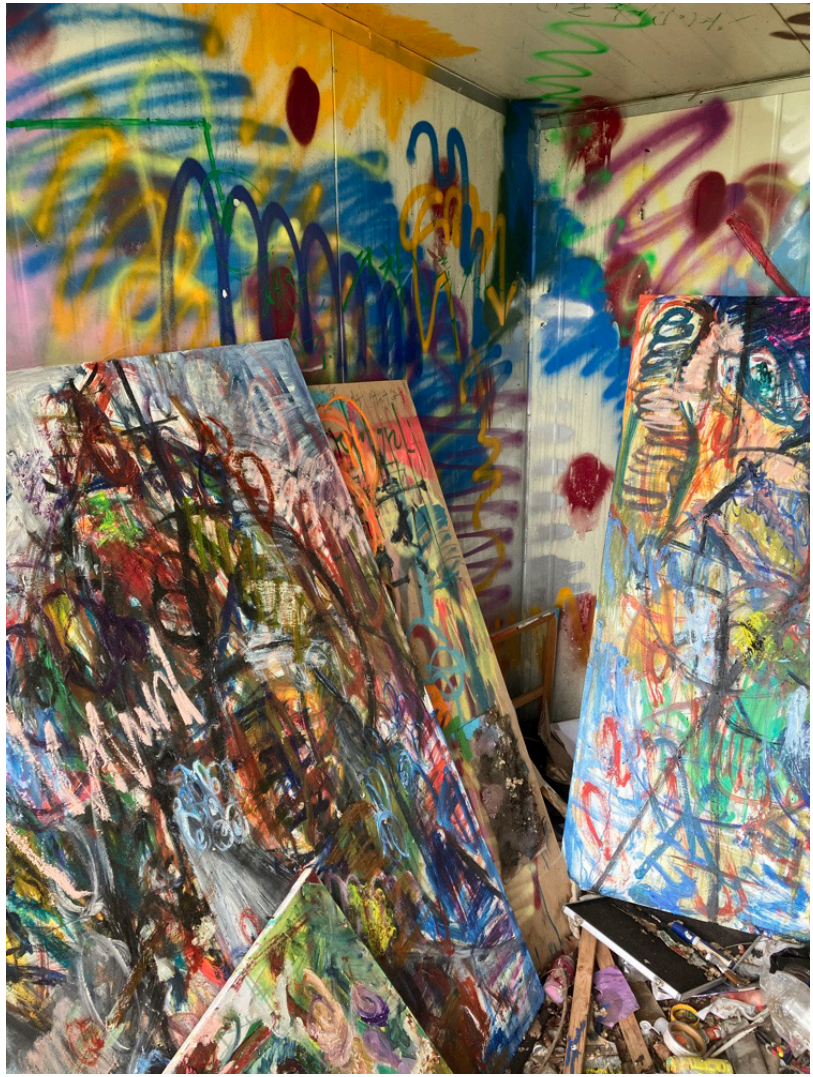
이 장면의 빈곤은 어디서 오는가? 화면에 색이 오히려 지나치게 많은데. 파랑과 주황, 검정과 분홍, 녹색과 탁한 갈색이 서로 밀어내고 침범한다. 다만 그 안의 선은 형상을 만들기보다 이미 생긴 형상을 긁어 없애며, 안료는 표면을 채우면서 동시에 그 표면의 안정성을 훼손한다. 그러므로, 그들은 비어 있기 때문에 가난한 것이 아니다. 너무 많은 흔적이 하나의 형식으로 정리되지 못한 채 남아 있기 때문에 가난하다. 가진 것이 적은 이미지가 아니라, 가진 것을 소유하지 못하는 이미지다. 누구도 화면에 귀속되지 않고 주변의 그림으로 번져나가며, 단 하나라도 어디에서 시작되어 어디에서 끝나는지 알 수 없다. 앞의 그림과 뒤의 그림, 작품과 벽, 회화와 낙서는 서로의 경계를 빌려 잠시 모습을 얻는다. 각 이미지는 독립된 세계가 되지 못하고 다른 이의 일부로 흡수되는 것.

저쪽에 비가 내리고 있다. 하늘의 속이 터져, 검푸른 내장이 한 줄기씩 바다로 쏟아지고 있다. 하필 마른 쪽에 있다는 사실이 자꾸만 모욕과 같이 나를 밀어낸다.

저곳에서는 세계 하나가 제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허물어지는데, 이쪽은 멀쩡한 피부를 뒤집어쓰고 그것을 구경하고 있나. 비린 빛의 수평선, 찢긴 구름, 거기서 끝도 없이 흘러나오는, 그것은 비였으나 그뿐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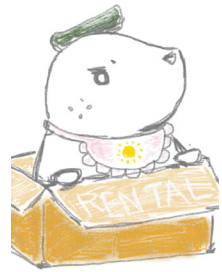
나는 저곳에 갈 수 없다. 애초에 저곳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따금 인간 하나쯤 완전히 누락된 채로도 너무 잘 완성되는, 그곳의 바다는 젖고, 끓고, 제 살을 뒤집는다. 다만 여기서 그것을 본다. 이 비루한 방식으로만, 저 세계의 바깥에 매달리는 이.







주식을 하는 자는 믿는 자이다



오 종 원
문화소비자 / 피그헤드랩 운영

돈을 쉬게 하지 말아라. 뭐 어디선가 들은 유명한 말이다. 나는 요즘 직장 생활에 고민을 하고 있다. 이직 혹은 퇴직을 염두 하다 보니, 돈을 어떻게 모으고 순환해야 할지 고민을 한다. 아마 많은 직장인들이 비슷하겠지만 나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

주식 이야기가 유행인지는 좀 되었다. 관심있는 사람은 알겠지만 한동안 코스피가 쭉쭉 올라갔다. 내 경우 국장, 한국의 주식시장을 믿는 편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코스피에 대한 공약을 걸었을 때에만 해도 마냥 남일처럼 생각했었다. 그런데 이게 점점 쭉쭉 올라가더니 결국 주식을 안 하면,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없으면 바보처럼 느껴지는 세상이 왔다.

주식에 대해 뭐 전문적인 이야기를 나누자는 것은 아니다. 이야기를 꺼내는 나부터가 전문성이 없다. 그저 습관처럼, 아침 9시가 눈에 띄었을 때나 간간히 주식 어플을 접속한다. 마치 그날의 운세를 점치는 기분 마냥 작은 기도를 한다. 올라 있어라 올라 있어라. 그래 속칭 '기도 메타'라고 불리울 수도 있는, 주식에 대한 이해도나 전문성 없이 어떤 긍정적인 바람 하나로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이다.

다만 그럼에도 투자하기 전에 나름의 노하우는 있다. 가령 어떤 종목에 관심이 생긴다면 해당 기업을 검색해서 뉴스들을 찾아본다. 홍보 업무를 해보았다고 생긴 나름의 관점인데, 뉴스를 읽다 보면 이게 정말 보도될 가치가 있는 뉴스인지 아니면 기업이 일괄적으로 뿌린 보도자료인지 살짝 느껴지고는 한다. 후자의 경우가 느껴지면 나는 그 종목은 관망하거나 포기하고는 한다. 적어도 아무 주식이나 살 수는 없지 않는가.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은가

싶다. 아마 주식의 처음을 따끔하게 시작해서일 것이다.

2020년 쯤이었나, 어머니가 어느 날 전화를 하시더니, “종원아. XXX 주식을 좀 사봐라.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나는 당시에 주식을 하지 않았다. 철저히, 부는 노동으로만 축적해야 하지 않냐는 다소 아날로그한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간간이 어머니께서 주식 이야기를 하며 “오늘은 소나타 타이어 하나 벌었네” 라며 기뻐하다 가도 어떨 때는 말도 없이 시무룩한 모습을 보기도 한 터라, ‘나는 주식은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해오던 와중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느낌이 달랐다. 상당히 완고하게 특정 기업의 주식을 권하는 것이 아닌가. 느낌상 어머니는 이것이 확실히 이득이 날 것이며, 아들에게 투자의 재미를 가르쳐주려는 것 같았다. 종원아. 돈은 이렇게 벌어야 해. 이렇게 돈을 돌려야 목돈을 만질 수가 있단다.
그렇게 설득을 당하다 당하다 못해서 결국 대체 무슨 종목이길래 그렇게 까지 권하나 싶었다. 그리고 그 기업을 인터넷에 찾아보았더니 ‘중국 회사와 손을 잡고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고 있다’ 라는, 일명 코로나 테마주였다.
당시 코로나로 인해 전세계가 난리였던 상황이었다. 백신이 막 나왔던가, 아직 개발 중이었나 기억이 가물가물 하다.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코로나였지만 여기서 또 코로나 특수를 노리던 이들도 있었다. 백신과 의약품은 물론 마스크나 1회용품까지 코로나와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을 것 같은 주식들은 등락을 하고는 했던 상황이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권한 기업은 조금 미심쩍었다. 특히나 앞서 말한대로 뉴스기사들이, 뭔가 한번에 뿌린 듯 비슷하고 성의가 없는 묘한 느낌.
엄마. 진짜 이거 괜찮은 것 맞아? 그랬더니 정말 확실하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 믿음의 근거가, ‘어머니의 가게의 뒷 가게에 아는 사람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모 유명 정치인의 조카’였고, 그 사람이 권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듣기만 해도 싸하지 않는가. 엄마 나는 이거 정말 별로인 것 같아. 나는 정말 불안한데.
괜찮으니 한번 해보란다. 엄마를 믿으라고. 네가 손해를 입으면 엄마가 메꾸어 주마. 그러니

엄마를 믿고 투자를 해라. 마치 다 차려 놓은 밥상에 한 숟가락만 떠먹으라는 것처럼.

그리고 그 결과는. 나에게 믿음을 권했던 어머니께서 "종원아! 당장이라도 빨리 팔아라!" 라고 바뀐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 주식은 작전주였고 이미 내가 들어갔을 때 상한가에서 절정을 치닫던 순간이었다. 전문 용어로 빨래질인지 설거지인지, 아무튼 세력이 마지막으로 개미들 돈을 싹 긁어내는 과정에 내 돈이 휩쓸러 간 것이다. 투자한 금액의 3분의 1이나 찾았을까. 결국 해당 주식은 상장폐지가 되어버렸다.
나는 작은 돈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감안할 수 있는 금액을 넣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알고 봤더니 제일로 혹한 사람은 어머니가 아닌 내 동생이었다. 나는 그래도 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건너 듣다 보니 적당히 투자하고 말았지만, 어머니와 함께 일했던 동생은 '어머니 가게의 뒷 가게에 아는 사람인 모 유명 정치인의 조카'에게 단단히 홀렸던 것이다. 동생만이 아니라 매제의 자금까지 동원해서 결코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단다.
거봐! 느낌이 좋지 않더라니깐!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 같은 소리는 믿지 말라고 했어! 다음 가족 모임에서 나름 한 소리 한다고 했는데 분위기가 너무 싸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다시는 우리 집에서 언급되지 못할 것이 되고 만다. 그 후 어머니는, 나에겐 권하지 않으셨어도 몇 번의 비슷한 일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고 주식 어플을 지웠다는 얘기를 동생에게 건내 들었다.
그 후로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뭐 서두에도 말했지만 그 후로 짬짬이 여윳돈으로 주식을 하게 되었다. 초기에는 초심자의 행운으로 단타를 하여 돈을 만지기도 또 잃기도 하였다. 주식을 하는 이들은, 결국에는 수익을 내는 것이 목표 겠지만 이 과정에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또 때에 따라 손절을 해야 하는 상황도 있다고 한다. 나 같은 소인배는 이것을 잘 견디지 못하더라. 조금이라도 마이너스가 되면 괜히 신경이 쓰이고 자꾸 주식 어플만 쳐다보게 되었다. 안되겠다 싶더라.

그래서 미국 ETF를 조금씩 모아가기 시작하였다. 마치 은행에 적금 붓듯이 돈이 생길 때마

다 짬짬이 투자를 하고 있다. ETF는 큰 은행이나 투자기업에 내 돈을 맡기고 대신 운용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그리고 월이나 분기 별로 배당금을 받는 것이다. 미국 ETF의 장점이자 단점은 원금의 변동이 없지는 적다는 것이다. 많이 오르지도 않지만 많이 떨어지지도 않는다. 또 손실이 났다 하더라도 미국 경제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언젠가 복구는 한다는 것이다. 배당은 또 별도인 것이고. 그래서 나는 미국 ETF의 경우 주변이들에게 꽤나 권장하는 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문 트레이너가 아니고서 직장인이 '단타'라는 것을 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 주식의 개념은 쉽다. 쌀 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 그러나 그 올라가는 순간과 떨어지는 찰나를 파악하는 것도, 또 파악했다고 그 타이밍에 매매를 하는 것도 주식창을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하는 것이지, 업무에 정신없는 직장인이 별 수가 있겠는가. 결국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제일 속 편한 것이다.

이야기가 ETF로 잠시 샜다. 아무튼 미국 ETF를 신봉하고 국내 주식은 그리 흥미가 없던, 그런 나도 혹할 정도로 국내 주식이 이렇게 오를 줄이야. 언젠가부터 주변에서 코스피에 대해 얘기가 끊이지 않게 되었다. 연이어 뉴스 등에서 들리는 코스피 상승 소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끊임없는 뉴스들은 결국 사람들의 흥미를 충분히 돋군 것 같다. 내 주변에서 주식 이야기가 끊이질 않는 것이다.

작년 말, 아내와 저녁상을 준비하며 종종 보는 경제 유튜브를 틀어 놓았다. 꽤나 유명한 유튜버인데, 경제를 코믹하고 유쾌하게 다루어서 부담 없이 보는 채널이었다. 그날도 초대 패널로 젊은 애널리스트 한 분이 등장하여서 반도체에 대해 설명을 하였다. 채팅창에서는 '반도체 눈나' 라고 불리운 단다.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소식을 전하는 애널리스트에게 유튜버가 계속 물어본다. "아 그래서 삼성전자가 얼마까지 갈까요?!" 웃으면서 넘기려던 애널리스트에게 한시간은 가까이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한참 깔깔거리는 분위기가 고조되더니 어느 순간 애널리스트가 "삼성전자 15만원 갑니다!" 라고 외치더라.

삼성전자가 15만원이나 간다고? 에이 설마~ 바로 직전에 나는, 6만원 대에 매수한 삼성전자를 8만원 대에 익절 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삼성전자는 6만원에서 8만원 사이를 계속 오가던 상황이었다. 그러다 심각할 때에는 4만원 대를 찍은 적도 있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이, 대기업이라는 이유로 소소하게 사고 팔던 나는 삼성전자가 4만원 대까지 떨어졌을 때 피로감을 느끼게 되더라. 그래 국내기업은 너무 피곤해. 역시 미국 ETF가 최고지 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 애널리스트, 반도체 눈나의 조언은 어느정도 긍정적인 미래일 뿐이야 라며 생각하고 말았다.
에이 삼성전자가 어떻게 저 가격을 가겠나. 웃으면서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아내의 눈빛이 잠깐 반짝이더라. 이윽고 얼마 후, 치솟아 오르는 삼성전자의 주식을 치솟아 오르기 시작한다.
반도체 눈나 고마워요라며 아내는 행복해 보였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비상금으로 조금 삼성전자를 사두었단다. 그리고 그때 사둔 삼성전자는 15만원은 물론 30만원 대까지 치솟아 버렸다. 한번씩 나에게 농담을 던지고는 한다. 왜 반도체 눈나를 믿지 못하였냐고. 그러게 말이야. 나는 왜 반도체 눈나를, 아니 이재용님을 믿지 못했던 것인가. 그때 반도체 눈나 말을 듣고 전 재산을 쏟아 부었다면!(당연히 농담이다.)

아무튼 그렇게 다시 진입한 코스피. 나는 어느새 이 종목 저 종목 조금씩 구매했다 보니 나름 벌써 한가득 한국 주식을 떠안게 되었다. 그리고 코스피는 한참 더 상승 기세를 치닫으며 우르르 올랐고 나는 열광하였다. 드디어 새 차를 뽑을 수 있는건가?! 좋아 열심히 착하게 살았다고 드디어 복을 받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무섭게, 갑자기 흔들리기 시작한다.
9천을 찍었던 코스피는 지금 6천대로 후르륵 떨어지고 말았다. 결국 나는 애매하게 물렸다면 물렸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오늘의 주식창은 썩 재미가 없다. “파란 나라를 보았니~” 라는 노래를 흥얼거리지만 주식에서 파란 색은 결코 꿈과 희망이 가득지 않다. 오늘도 많은 직장인들, 또 많은 이들이 주식창을 열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늘 무엇을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 시험에 오를 것이다.

L♡보ME 칼럼_
5. 말랑말랑하고 쫀득쫀득하게

조 은 영
기획자 / @ dalnurilab

유난히 뜨거웠던 여름이 지나고 있다. 한동안 무뎌진 시간에 대한 감각이 7월의 열기 덕분인지 아직 몇 달이 남은 겨울 여행을 상상하다, 가깝고도 먼 나라의 일본어 공부를 시작했다. 작년에 2주 정도 일본을 여행하며 “아리가또”와 허접한 콩글리쉬로도 여행에 전혀 불편함을 못 느꼈지만 아쉬움이 없지만은 않았다. 더욱이 한, 중, 일이 공유하는 천문도를 재해석하는 기획을 했음에도 동아시아 **漢字** 문화권의 문화(**文化**)를 이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한자 어휘를 이번 기회에 확장하고 싶었다. 게다가 의미도 모르고 불쑥 튀어나온 일어 “야사시”라는 단어가 야릇하고 이상하다는 의미가 아닌, 다정하다는 뜻인 것을 알게 되었고 어감과 의미의 패턴이 두나라 간에 어떻게 다른 지 궁금했다.

유년 시절 J-pop을 자주 들으며 성장했지만, 본격적으로 일본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2013년 열렸던 엑스-포메이션(Ex-formation) 서울×도쿄 전시에서 ‘무인양품(MUJI)’ 디자이너인 하라 켄야(Hara Kenya)의 대담을 듣게 되면서다. 그게 벌써 12년 전이니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동안 내 유전인자가 **漢字** 사유에 지속적으로 매력을 느꼈던 터라 공부를 결심했는데 무엇보다 흥미로운 건, 모국어의 미래를 상상하며 시작한 훈민정음이 창제될 무렵, 탁본 된 천문도 조선시대의 ‘**天象列次分野之圖**(천상열차분야지도)’를 해석했던 기획에서 발견한 ‘스키마’ 개념을 이제 내 자신에게 적용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오프라인 강의와 교재보다 AI 번역기를 더 자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래전에 보았던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감독의 영화 ‘Her’가 떠올랐다.

영화의 줄거리는 남자주인공이 AI 목소리와 사랑을 나누게 되는 로맨스 극이다. AI 목소리는 스칼렛 요한슨이 연기했고 인상 깊은 점이 있어서 감독의 프로필을 검색하니 본명이 애덤 슈피겔(Adam Spiegel) 유대계 미국인이다. 독일어로 Spiegel은 거울을 의미하는데, 이름에서 그가 유대계 독일인 혈통이라는 걸 짐작할 수 있었다.

게다가 그의 전 부인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Lost in Translation?) 를 감독한 '소피아 코폴라'였다. 2003년 애덤 슈피겔과 이혼한 해에 만들어진 그 영화의 줄거리 역시 언어적 소통을 주제로 한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 유명한 '대부' 시리즈를 감독한 프랜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딸과 결혼했던 스파이크 존즈(Spike Jonze) 아니, 애덤 슈피겔(Adam Spiegel) 감독이 소피아 코폴라 감독과 이혼하고 10년이 지나 'Her'를 만들었고, 주인공이 소피아 코폴라 감독의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Lost in Translation) ' 에서 주인공을 맞았던 ' 스칼렛 요한슨 ' 이 인공지능 AI의 목소리를 연기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다.

그 두 영화를 다시 보고 10년의 시차에 이탈리아 혈통의 미국인 코폴라 가문과 유대계 독일인 혈통의 미국인 간의 교차 된 시선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거대 도시 뉴욕과 도쿄를 바라보는 부감(俯瞰)적 시선, 그리고 세계의 3대 도시에서 사는 외로운 현대인을 위로하는 듯한 야릇한 분홍빛이 내게 교차(交叉)했다. 나는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그렇게 말랑말랑하게 변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더 쫀득쫀득하고 말랑말랑하게 말하는지 마치 오디션 무대에 있는 것처럼, 서로 경쟁하듯이 말이다. 만약 그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더 잘 느끼게 될까?

(2026. 08. 25. 조은영 @dalnurilab)

* 영화의 원제인 'Lost in Translation'은 '통역이나 번역 과정에서 말의 의미가 일부 누락되었다'뜻의 숙어인 반면, 한국어 제목은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로 개봉되었다.[나무위키 참조]



www.dalnuri.vercel.app/
기획자 조은영@dalnurilab

왜 프랑스 사인가?



이 동 민
자전거와 투르드프랑스를 연구하는, 서양사학자

편집자 주: 이번 달 이동민 필진의 원고는 규격 상 다음 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왜 프랑스사인가?

영국사와 미국사 사이에서, 프랑스사를 읽는 이유

동민

역사학 연구자 /「프랑스사 10컷만화」@france.toon.10cu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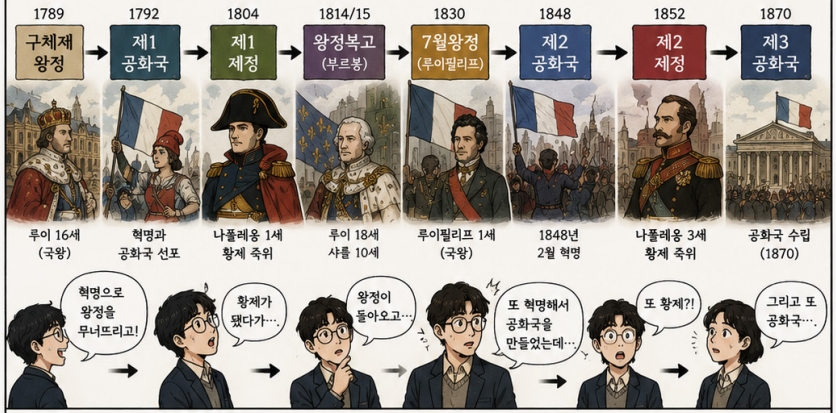
세계사에서 프랑스의 존재감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대중 역사에서 프랑스사는
영국사나 미국사보다 조금 낮선 분야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왜 굳이 프랑스사를 읽어야 할까요?

근대 세계를 설명할 때 영국은 자주 동장합니다.
산업혁명과 의회정치, 자본주의와 제국주의.
미국 역시 독립혁명과 헌법, 남북전쟁을 거쳐
오늘날 세계질서의 중심으로 이어지는 이야기를 만들기 쉽습니다.



프랑스혁명 이후의 프랑스사는
하나의 방향으로 정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왕정을 무너뜨리고 공화국을 세웠다가,
제정과 왕정이 돌아오고, 다시 혁명과 공화국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함은 프랑스사의 약점이 아니라, 우리가 프랑스사를 읽어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프랑스는 자유와 평등을 일찍 실현한 모범국가였을까요?
자유 · 평등 · 박애
LIBERTÉ · ÉGALITÉ · FRATERNITÉ
권리를 선언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곧바로 그 권리를 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1789)
아니었습니다.
혁명기의 공포정치 (1793~94)
1848년 6월 봉기 진압
1871년 파리 코뮌 진압 (피의 주간)
LA COMMUNE DE PARIS
공화국과 함께 팽창한 식민제국
혁명과 공화국의 역사에는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배제, 반동과 식민주의도 함께했습니다.
프랑스사는 '진보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제3공화국 역시 선포되는 순간 완성된 체제가 아니었습니다.
Le Gaulois
1871년 5월 16일 위기 공화국 위기, 의회 해산!
LE PETIT JOURNAL
블랑제 사건
"장군이여, 파리로!"
LE SIÈCLE
드레퓌스 사건
진실은 무엇인가?
정통왕당파 (부르봉파)
부르봉 왕조로 돌아가야 한다!
오를레앙파
입헌왕정이 더 낫다!
보나파르트파 (보나파르티스트)
강한 황제가 필요하다!
온건공화파
우선 공화국부터 지켜야 합니다.
급진공화파
더 철저한 공화국을!
사회주의자
정치적 평등만으로 충분한가?
가톨릭 성직자·평신도
교회의 자리는 어떻게 되는가?
RÉPUBLIQUE
제3공화국
1870년에 공화국을 선언했으니 이제 끝난 것 아니었어요?
이제 시작인데요?
왕정복고의 가능성과 정치적 위기, 공화파 내부의 갈등을 거치면서
공화국의 제도와 문화가 조금씩 자리를 잡았습니다.
공화국은 선언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정치체제가 끊임없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은 단지 '누가 통치할 것인가'만을 두고 싸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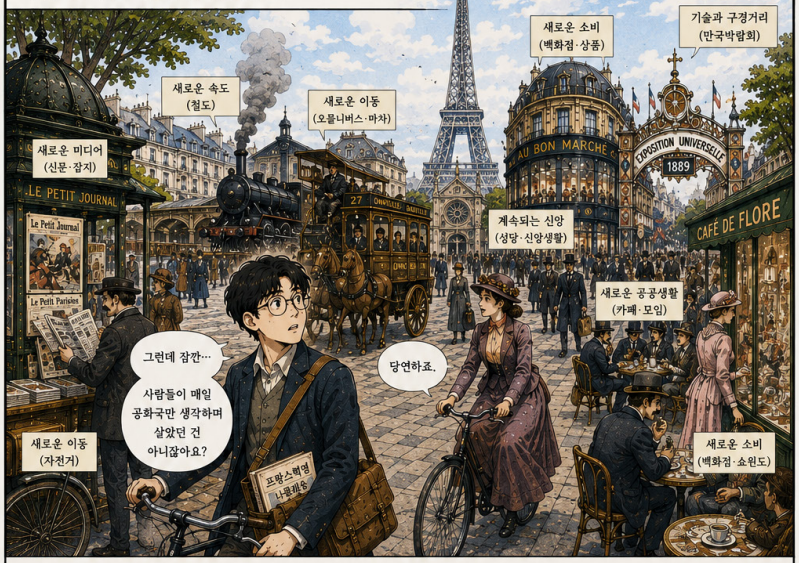
자유와 평등, 시민과 국민, 좌파와 우파, 공화국.
이런 개념들이 모두 프랑스에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프랑스는 혁명과 반혁명, 공화정과 제정, 왕정의 반복 속에서
그 말들의 근대적 의미가 끊임없이 충돌하고 다시 정의된 중요한 무대였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사는 '근대정치의 실험실'을 들여다보는 것과 닮았습니다.

혁명과 공화국만이 프랑스사의 전부일까요?

사람들은 매일,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무엇을 읽고,
무엇을 사고, 무엇을 믿고, 어디에서 만났는지도
프랑스 사회를 바꾸었습니다.
정치가 바뀌는 동안, 일상도 함께 바뀌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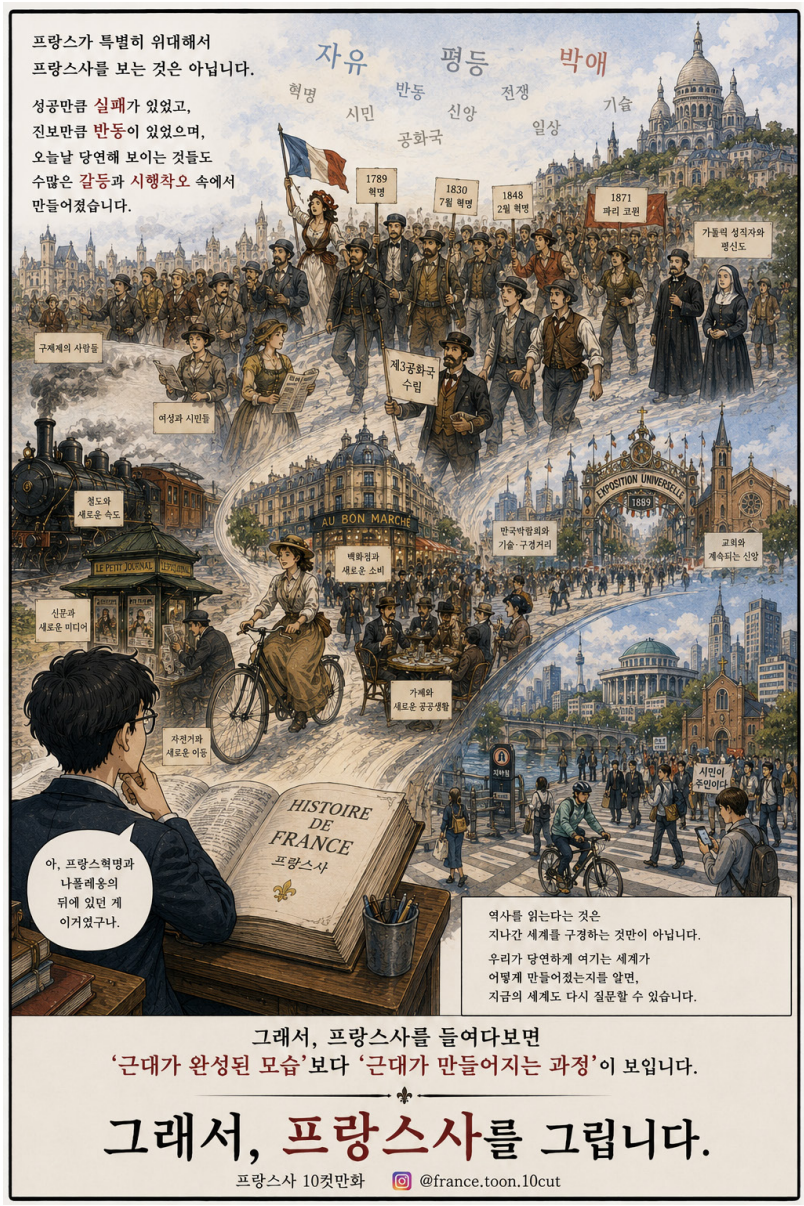
프랑스사는 '혁명의 역사'인 동시에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이 일상 속에는 수많은 사람과 사물이 함께했습니다.
그것들은 역사의 '조연'이 아니라
때로는 '주연'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회를 들여다보면,
우리 자신의 사회도 낯설게 보입니다.
프랑스사를 읽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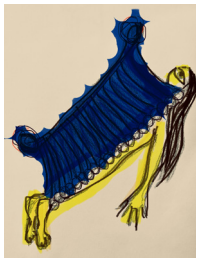




그래서, 프랑스사를 들여다보면
'근대가 완성된 모습'보다 '근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보입니다.

그래서, 프랑스사를 그립니다.

프랑스사 10컷만화 @france.toon.10cut



그 곳에 가고싶다 : 유토피아(Youtopia)

X
작가 & 전시기획자

가족

올해 3월에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부재중 전화가 왔다.
퇴근하고 저녁에 발견하여 읽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나의 옛 이름을 부르는 그는 나의 아주 오랜 기억에 사라진 여러 사촌 중 한 명이었다. 2001년에 창원에서 보고 오늘날까지 보지 못한 오빠는 내가 아직 가보지 않는 외국의 어느 나라에 살고 있었다.
이미 결혼하고 딸도 낳아서 내가 마지막에 봤을 땐 행복하게 가정을 꾸려 살고 있었다. 그 후로도 자식을,둘을 더 낳았고, 자식들은 장성해서 한국과 외국에서 일을 한다. 사촌 오빠는 이제는 외국에 하도 오래 살아서 한국이 불편하다고 했다. 이미 외국에 살고 있는 줄 난 알고 있었지만, 그가 나처럼 한국의 동시대 문화를 불편해하는지는 몰랐다.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내가 이제는 가족과 친척과 연을 끊기로 결심한 지 몇 년이 됐는데 갑자기 사촌에게서 온 전화를 내가 무시할 수도 없었다. 또한, 25년 만에 들은 음성에 내가 차가워질 수도 없다. 그는 나의 아버지와 가족에 대한 안부를 물었다.
몇 년 전 그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즉 나의 이모 장례식장에서도 이모부와 그의 동생인 또 다른 사촌 오빠를 봤다. 난 그들을 챙기면서 여러 얘기를 했지만, 늘 나에게 돌아오는 말은 아버지와 언니들에 대한 걱정과 안부였다. 하지만 누구도 쉽사리 내 가족을 직접 보고 싶어 하지는 않았다. 어머니가 세상에 없으니 당연한 것 아닌가? 어렸을 친척이 땐 보고 싶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난 잊어버리게 되었다.

예전부터 친척들은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내 어머니의 죽음을 초래한 사람이 어머니 스스로가 아니라면 내 아버지라고 느낀다는 걸 난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나의 어머니를 좋아했고, 어머니를 쾌활했던 성격을 가진 좋은 사람으로 기억했다.

나의 아주 오랜 기억에 내 친자매들은 어머니를 무서워하고 친척들은 어머니를 걱정했다. 어머니의 죽음이 다가오던 시기에, 당시 어머니가 겪은 고통에 친척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를 구하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없음을 느낄 때, 친척도 아무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이 난 싫었고, 후에는 나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들도 어쩔 수 없었고 나보다 아버지에게 더 큰 감정을 가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전화 속에서도 서로 안타까워하는 것은 어머니가 아니라, 과거를 잊지 못하고 살아가는 나의 자매에 대한 것이었다. 그리고 내가 선을 긋고 살아가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는 내 사촌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그도 오랜 외국의 삶과 지켜야 하는 자신의 가정에서 이모와 이모부를 많이 돌보지 못한 것을 후회하지 않을 거 같다.

내가 수년 전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를 생각했다.
그때는 가족과 연을 끊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냥 내 인생의 여정에 새로운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다. 이제는 정리해야 하고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나에게 유토피아가 없을 것이라고 느꼈다.
사촌은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안타까운 목소리에서 난 느꼈다.
내가 선택한 것은 어쩔 수 없이 당연한 거라고...

우리는 미래를 본다.
난 지금도 마냥 행복하지는 않다.
그러나 후회는 없다. 내가 새로운 가족을 만나야 한다는 결심이 나를 여기로 이끈 것을...

올해 사촌 오빠가 나를 다시 보면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우린 너무 많이 바뀌었을 테니까 말이다.





요즘 내가 많이 애착하는 맥주. 즐겨 찾는 엘피 펍에서 우연히 찾은 맥주인데 맛이 꽤 좋다. 한 입만 마셔도 진하고 그윽한, 그러면서 숨기지 않는 복잡한 향미에 빠져들고 만다. 단 맛이 너무 진해서 딱 한병만 즐기고는 바로 다른 맥주로 넘어가고는 한다. 가격이 매우 비싼 것도 한 이유이긴 하지만.
벨기에 맥주라고 한다. 이름은 구덴 카를로스라고, 신성 로마제국의 카를 5세의 이름을 따왔다고 한다. 물론 브랜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해당 브랜드 페이지에 자세히 쓰여 있다만, 복잡하고 전통적인 발효법을 통해 이렇게 진하고 그윽하면서 와인향의 풍미 같은 맛을 살리고 있단다.
앞서 말한 데로 내가 즐겨 찾는 엘피 펍 한 곳에서만 이 맥주를 찾아 마시고 있다. 다른 곳에서는 이 맥주를 본 적이 없다. 분명 그 엘피 펍에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굳이 이 맥주를 찾으려고 한 적은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보았는데, 이 맥주는 '그 엘피 펍'에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 기분이 좋을 때' 마시는 맥주라는 것을 얼마전 생각해 내었다. 딱 즐기고 싶을 때, 살짝 사치를 부리고 싶을 때 마시는 맥주라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이 맥주를 만약 집에서, 생각보다 자주 마시게 된다면 그 묘한 소중함이 다소 희석되지 않을까 싶다



<월간 피그헤드랩> 및 관련한 모든 콘텐츠 저작권은 피그헤드랩(Pigheadlab)과 편집자, 개별 콘텐츠 당 창작자에게 있습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내 콘텐츠 사용 등의 문의는 피그헤드랩에 우선하여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월간 피그헤드랩>은 무가지이며 온라인, 문화 공간 등에 무료 공개 및 배포하고 있습니다. 늘 새로운 필진을 환영합니다.

월간 피그헤드랩 Monthly Pigheadlab, 2026. 8 / 44호
발행/편집 : 오종원
발행처 : 피그헤드랩 Pigheadlab (https://www.pigheadlab.com/)
※ 웹사이트 내 PDF로 관람 가능, 단체 및 장소 대상 무료 배포

문의 : pigheadlab@gmail.com / 01082339033 / 인스타그램 DM가능
이번달 참여 필진 : 김희진, 오종원, 이동민, 조은영, X